美볼티모어항 대형교량, '선박 충돌'로 심야 붕괴

선박, 교각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무너져 선박 동력 문제 추정…"테러 증거 없다"

"키 브리지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실제 볼 것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액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 보였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붕괴는 브랜던 스콧 볼티모 어 시장의 묘사대로 정말 영화의 한 장 면 같았다.

CNN 등 미국 언론의 사고 당시 영상 을 보면 26일(현지시간) 오전 1시에 볼 티모어항구를 출항한 대형 선박이 다리 를 향해 다가갔다.

5천개에 가까운 컨테이너를 갑판 위 까지 가득 실은 선박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려고 했으나 결국 피하지 못 하고 오전 1시28분께 다리 중앙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았다.

교각은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하부 구조다.

너선이 시속 148km의 속도로 들이받은 충격에 교각이 먼저 쓰러지고 그 위의 구 조물을 시작으로 다리 전체가 무너졌다.

교각 위의 상판이 균형을 잃고 시소 처럼 기울다가 물속으로 떨어졌다.

곳곳에서 철골 구조가 엿가락처럼 휘 어지면서 끊어졌으며 길이 약 2.6km의 교량 중 강물 위를 지나는 56m 구간 전 체가 물에 내려앉는 데 약 20초밖에 걸 리지 않았다.

선박의 갑판 위로 다리의 파괴된 구 조물이 떨어지면서 선박의 조명이 꺼지 고, 선박과 교량 일부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

도널드 하인부흐 전 볼티모어 소방서 서장은 수초간 집을 흔드는 소리에 놀 라서 깼다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 껴졌다"며 말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소개하던 CNN 앵커 길이약300m,폭약48m의대형컨테이 는 "저렇게 다리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26일(현지시간) 오전 1시께 대형 컨테이너선이 미국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키 브리지'의 다리를 들이받고 무너져 처참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했고 이 중 6명이 실종됐다. /AP=연합뉴스

아주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 정도 크기의 선박으

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교량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컨테이너선은 충돌 당시 동력을 상실

하고 조종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 선원들은 무전 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면서 충돌에 대 비해 차량의 교량 통행을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박은 닻을 내리는 비상 조치도 취했다.

경찰은 선박의 충돌 경고에 따라 교 량양끝을통제했다.

이 경찰관은 수초 뒤에 무전으로 "전 체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다리 전체가 붕괴했다"고 다급하게 외쳤다.

당시 다리 위에는 포트홀(도로 파임) 작업을 위해 8명의 인부가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작업용 무전에서 누 군가가 '선박이 통제를 상실해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인 부를 대상으로 한 후속 대피 명령은 없 었다. 30초 뒤에 다리는 붕괴됐고 무전

인부들은 사고 당시 휴식 중이었으며 일부는 트럭 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6명은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상태다.

날이 밝은 뒤 부서진 철골 구조물이 그물처럼 선박 앞부분에 삐죽나와 처참 한 몰골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영화 '타이태닉'에 등장하는 문짝 소품.

영화 '타이태닉 문짝 소품' 9억7천만원에 팔렸다

영화 '타이태닉'(1997)의 대미를 장식 하는장면중하나는배가침몰해바다에 빠진 주인공 잭과 로즈가 문틀에 의지해 마지막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잭은 로즈를 문틀 위로 올려 구하고 자신은 바다에 빠져 죽는다. 로즈는 그 런 잭에게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 뭉클한 장면에 등장한 문틀이 지 난주 헤리티지 옥션이 진행한 경매에

CMYK

서 71만8천750달러(약 9억7천만원)에

길이 8피트(약 25m), 폭 35피트(약 1 m) 크기의 이문틀은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州)에 있는 대서양해양박물관이 소장 한실제 타이태닉잔해를 본떠제작됐다.

이 소품은 얼핏 문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화 속 타이태닉호 일등석 라운지 입구를 장식했던 문틀이라고 헤리티지 옥션은 밝혔다.

"日, '재집권 가능성' 트럼프에 줄대려 아베 통역사 투입"

로이터 소식통 인용…"집권시 미칠 영향에 광적인 대비"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 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서둘러 대비 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 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 직 전해지지 않았다. 통역사로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 간 통역을 맡았던 다카오 수나오를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그와의 접 점이 있는 인물을 외교에 적극 활용하 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파견 시기나 업무 내용은 아

다카오는 현재 중국 주재 일본 대사 관에서 근무하며 임기를 곧 마무리 짓 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오는 2016-2020년 트럼프 전 대 통령과 아베 전 총리 간 성사된 회담들

에서 아베 전 총리의 통역을 담당했다.

미국에서 자란 그는 회담에 앞서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을 찾아보고 그 가 골프를 칠 때의 습관까지 연구하는 등 원활한 통역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 였다고 한다.

실제 다카오는 아베 전 총리와 트럼 프 전 대통령 간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 되는데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일본이 미국 대 선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

가했다.

그간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 권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주일미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 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등을 우려

미일 관계 관련 비영리 단체 '재팬 소 사이어티' 회장 조슈아 워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 물을 업무에 투입하려는 일본 관리들 의 노력이 '광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분 석했다. /연합뉴스

가자 주민의 비극…"구호품 건지려다 익사"

+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아사 자가 속출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서 바다에 떨어진 구호품을 건지려다 익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 다고 외신이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가자지구 해변에서 사람들이 공 중에서 투하된 구호품을 차지하기 위 사람이 18명에 이른다며 구호품 공중 해 앞다퉈 달리거나 바닷물에 빠진 구 호품을 건지기 위해 거센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에 맞거나 바다에서 구호품을 건지려 다 익사해 목숨을 잃고 있다.

닷물에서 구호품을 건지려다가 익사한 투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육상 국경검문소를 열어 인도적 구호품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주민들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구호품 게 닿을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전쟁 외중에 육로를 통 한 구호품 수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떨어뜨리기도 하 고, 선박을 이용해 대규모 물자를 해안 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 그러나 이렇게 전달된 구호품이 필 요한 양의 20%에 그치고 있다는 게 구 호단체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